

# 소비 위축에 제철 수산물 위판가 '뚝'

### 수협 광주공판장, 전복·광어 등 위판가격 전년비 20% 하락 완도 활전복 마리당 992원·광어 40% 할인 '눈물의 멍처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전남지역 어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에 따르면 3월1일~4월9일 주꾸미·전복·광어·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 위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20% 하락했다.

이 기간 동안 광주공판장에서는 전복이 4t 거래되며 위판금액은 1억1640만원을 기록했다.

kg당 위판가격은 2만1500원에서 높게는 4만61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3100원~5만7700원)보다 최고 1만1600원(-20.1%) 떨어졌다.

3~5월이 제철인 주꾸미 위판가는 kg당 1

만7000~3만원으로, 13% 가량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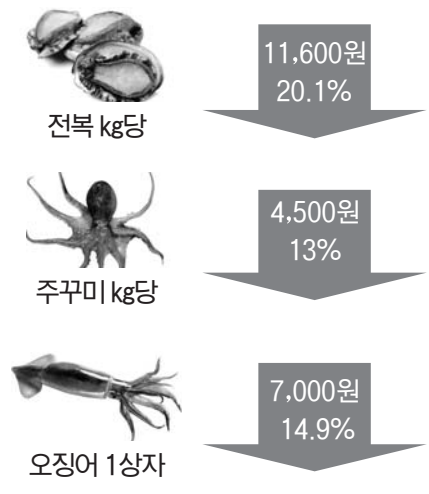
오징어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1t 가량 늘어난 10t(1억240만원 상당)을 기록했지만 위판가격은 최고 7000원 가까이 떨어졌다.

4월 현재 오징어 1상자(5~7kg)는 4만~6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표 횡감 광어의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1t 감소하면서 거래금액도 27.6% 줄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공공기관 등과 손잡고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완도와 경북 포항, 울산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방식 수산물 특판장을 서울과 광주, 세종, 경남 하동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광주공방 방면 도로(광산구 우산동 200)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이 마련돼 넉치(1~2kg)를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양식수산물 출하금액은 1월보다 15~40% 감소했고, 같은 시기 수산물 외 식업체 고객도 70% 이상 감소했다.

전국 340여개 대형마트 매장에서는 이달 15일까지 일정으로 활어회 할인전이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다.

광주·전남 9곳을 포함한 롯데마트는 지난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완도산 전복 50t 등 신선식품을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제휴카드도 결제하면 완도 활전복 1마리를 992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광어회(450g)은 기존가보다 40% 저렴한 1만 5900원에 살 수 있다. 롯데마트는 전남 대과 농가를 돕기 위해 2단 대과(1980원)를 사면 같은 양을 더 주는 '1+1' 행사도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남 대봉감·배 과수농가 냉해 피해 심각



김석기(왼쪽) 농협 전남본부장이 12일 나주 배 농가를 찾아 냉해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큰 일교차에 냉해 최대 90% 농협 전남본부 피해점검 나서

큰 일교차가 지속되면서 전남지역 과수 농가가 50% 넘는 냉해피해를 입었다.

12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영암 대봉감과 나주 배 농가의 냉해피해는 50~90%에 이른다.

영암 대봉감 농가는 전체 재배면적 650ha 가운데 90%에 달하는 585ha가 냉해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은 대봉감 나무는 최근 새벽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꽃봉오리가 검게 변색,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나주 배 농가 역시 전체 재배 면적의 절반이 넘는 972ha가 냉해를 겪었다.

지난 5~6일 이 지역 최저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배꽃 인공 수정이 어렵게 됐다. 이들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더라도 발육부진이나 기형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2일 영암과 나주 과수 농가를 방문해 현황을 살피고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전남본부는 피해 과수 농가에 영양제 공급 가격을 반값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피해 농업인들이 지원받은 선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일손돕기 지원,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중단되면서 이달 10일부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2년 주기로 인증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농관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서 제공한다. 인증 신청 분야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유기·무화학·취급자' 등으로 신규 인증 3시간, 인증 갱신 2시간 이상으로 구성됐다.

젊은 초보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기준과 인증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을 개인 방송 채널로 소개하는 형식이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험담도 담겼다.

농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친환경 농업인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인증 신청 때 받아야 하는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인증서 교부 이후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는 한시적인 예외 조치를 적용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는 사·군 단위 순회교육과정을 개설해 친환경 농업인들이 의무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 10일 올해 첫 '풍광수도' 쌀 제주지역 진출을 기념한 행사를 가졌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전남 쌀 '풍광수도' 수도권·제주 시장 공략

### 농협 전남본부 1만6000포 공급 구매 고객에 견본쌀·대과 증정

전남 쌀 공동 브랜드 '풍광수도'가 지난해 제주와 수도권 지역 진출에 이어 올해 첫 공급을 시작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0일부터 제주도·수도권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10kg 풍광수도 쌀 1만6000포를 공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제주시 농협하나로마트, 일반 소매점을 통해 유통되며 수도권은

농협성남유통센터, 농협고양유통센터에 중점적으로 공급된다.

농협 전남본부는 이번 납품을 기념하기 위해 제주지역 구매 고객에게 견본쌀(500g)을 증정할 계획이다. 수도권 구매 고객에게는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전남 지역 생산 대과를 추가 증정한다.

최근 풍광수도는 신동진 단일 품종과 '상' 등급으로 표준화된 품질을 알리기 위해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했다.

지난 2016년 전면적인 개선을 거친 풍광수도는 이듬해 11개 미국종합처리장(RPC)이 함께 수도권·온라인 판매에 나섰다.

풍광수도 매출액은 2017년 6억원, 2018년 43억원 등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매출 100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목표 매출액은 지난해의 2배 수준인 200억원으로 잡았다.

김석기 본부장은 "지난 1월 풍광수도가 소비자가 선정한 2020년 베스트 신상품 미국부문 대상에 선정됐다"며 "올해는 풍광수도가 전국으로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수도권에서 동시 시작으로 경쟁력 및 흡수성과 온라인 쇼핑물까지 지속적으로 판로를 넓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어촌공사, 본격 농업용수 공급 시작

### 평균 저수율 92%

한국농어촌공사는 영농기를 맞아 지난 3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지역별 농업용수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전남지역 저수율은 87.3%로 전국 평균 92%를 밑돌았다.

전남지역 평년 저수율은 70.6%로, 평년과 대비하면 123.7%의 저수율을 기록했다.

농어촌공사는 전국 수리시설 1만4211곳을 통해 영농 급수를 진행한다.

공사는 "공사 관리 저수지의 전국 평

균 저수율은 92%로, 평년 77% 대비 118%를 보이며 올해 영농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는 "지난해 가을걷이 이후부터 지역별 저수율과 강수량 현황을 분석해 용수부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 선제적 용수확보를 추진했다"며 "영농기 이전에 농업용수 764만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전국 저수지, 양배수장, 수로 등에 설치된 3300여개의 자동수위계측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과학적 용수관리도 지속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 동곡농협, 레이저 균평작업 무료 진행

광주 동곡농협은 지난 달부터 다음 달까지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레이저 균평작업'을 무료로 진행한다

이번 작업은 모내기 전까지 벼 피파제 배 활성화를 위해 수도작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레이저 균평작업은 논밭의 높낮이를 레이저로 측정해 수평을 맞춘다.

4월 현재 동곡농협은 56농가 총 면적 약 6만2900평(약 21ha)에 균평작업을 했다. 5월 모내기 전까지 총 70여 농가에 균평작업을 제공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